

전통사찰과 어울리지 않으면 안 한 것만 못해

포장(2) 좋지 않은 사례

전통사찰에서 일어나는 수리행위는 건축물이나 석조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포장을 비롯해 계단, 석단, 담장 같은 조경요소들의 수리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문화재 보유 사찰의 경우에는 이러한 건축이나 조경요소의 수리 혹은 신설시 반드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의 수리나 신규설치가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통사찰의 포장은 맨땅 그대로인 경우가 대부분 이었고, 특별히 처리한다고 해도 주변의 돌을 가져다 깔아놓는 정도에 불과했다. 최근 사찰에서 이뤄지는 포장은 과도한 장식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전통사찰의 원형적 경관과 부조화를 이루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역시 적지 않다. 포장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점은 전통사찰의 진정성을 해치게 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과도한 장식성을 보이는 사례

포장의 본래적 기능에는 기능적인 면과 심미적인 면이 있다. 기능적인 면은 보행의 편의성을 추구하고 침식성을 방지하는 것이 주가 되며, 심미적인 면은 포장 그 자체가 아름다움을 주는 것으로 디자인



화강석 통돌을 다듬어 포장해 장식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벽돌은 흙을 재료로 했지만 색채나 질감이 사찰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적으로 우수한 경우를 말한다. 최근에 수리하거나 신설하는 포장의 경우 지나치게 장식적 측면을 강조하여 산사에서 찾을 수 있는 자연친화적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사례로 일주문에서 삼문을 거쳐 진입하는 절 안의 도로를 화강석 통돌로 포장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장중한 미를 보일뿐만 아니라 비가 온 다음의 질척거림이나 길이 파이는 등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있어도 사찰이 가지는 원형적 경관성과 심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사찰이 가진 진정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주변환경과의 친화성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두 번째 사례는 주불전 마당 전체를 화강석으로 포장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관리가 편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주어 좋은 점도 있지만, 화강석 색채와 질감이 전통사찰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차이가 많아 조화롭지 못한 경관을 만들게 된다. 더구나 우리의 전통사찰에서 볼 수 있었던 마당의 본래적 이미지와 너무 큰 차이가 나게 되어 이러한 포장 역시 전통사찰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보이는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재료를 잘못 사용하여 사찰의 경관을 해치는 사례

전통사찰에서 조화로운 경관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디자인적 요건이 된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전통사찰에서는 다양한 부조화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형태적 부조화, 재료의 차이로 나타나는 부조화가 가장 많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포장의 경우에는 재료를 잘못 사용하여 사찰이 가진 원형적 경관을 해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사소한 일이라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사찰에서는 포장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경관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게 나타난다. 포장재료를 잘못 사용하여 경관성을 저해하는 좋지 않은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 번째로 쇠석이나 석분을 까는 경우이다. 쇠석은 발파석을 잘게 파쇄해 만든 면이 날카로운 작은 돌이고 석분은 석산에서 쇠석을 만들고 난 후에 남는 미분석을 말한다. 쇠석이나 석분은 본래 포장재료가 아니고 레미콘에 사용하거나 다짐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나 비교적 값이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인지 최근에 마당이나 길의 포장용 재료로 많이 사용하게 됐다. 전통사찰에서도 쇠석과 석분을 절감이나 마당에 까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재료들은 전통사찰의 경관성을 크게 해칠 뿐 아니라 걷는 데에도 불편하여 좋은 재료라고 보기 힘들다. 또한 냇가에서 채취한 공자갈을 마당에 포설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쇠석이나 공자갈 같은 것으로 포장할 경우에는 보행시 좋지 않은 소리가 나기도 한다. 이렇게 마당에 공자갈을 깔아 소리를 내도록 한 것은 일본 무사의 집에서 닌자들이 침입하는 것을 소리로 알 수 있도록 만든 장치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일본식 포장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흙다짐 포장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쇄석을 깔아놓은 절 마당. 이처럼 포장 재료를 잘못 사용하면 경관을 저해하게 된다.

전통사찰 포장 특징은 맨땅 그대로 두는 것 최근 사찰 포장은 기능보다 장식 강조 추세 화강석 통돌 포장-전통사찰 색채와 부조화 쇠석·석분은 보행에 불편, 공자갈은 일본식

최근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재구역이나 보호구역의 포장에 흙다짐 포장을 권장하고 있어 많은 시공사례를 보이고 있다. 흙다짐 포장이라는 것은 마사토에 시멘트와 고화제 그리고 물을 혼합·포설하는 것으로 재료의 혼합비율이나 기층의 다짐상태에 따라 품질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특히 색채가 너무 진하거나 흐릿할 경우에는 본래 의도했던 자연친화적 효과를 잃을 수도 있고, 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쉽게 파손돼 문제가 되기도 한다. 전통사찰에서도 절길이나 마당에 흙다짐 포장을 하는 경우

를 간간히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천연적인 흙길과는 색채나 질감이 같지 않아 좋지 않은 결과가 많이 나타난다.

세 번째로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를 사용해 도로를 포장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차량이 점차 많아지면서 흙길을 그대로 두어서는 노면의 훼손정도가 심해지고 먼지도 발생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기는 하나 산사에 가는 길까지 철저히 인공적이 되어 간다는 측면에서는 환영받기 어려운 재료이다.

네 번째로 벽돌을 사용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석재·목재가 주된 재료이다. 벽돌은 흙을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가진 색채나 질감이 전통사찰 주제료인 석재·목재와는 너무나 차이가 난다. 또한 포장패턴 역시 전통경관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주게 되므로 벽돌을 사용할 경우에는 엉뚱한 경관을 만들어낼 소지가 많다. 최근에 점토를 소재로 만든 점토벽돌이 생산돼 자연친화적 경관성을 보이기는 하나 이 재료 역시 전통사찰의 석재료와 목재료와는 어울리는 재료로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절 마당에 잔디를 까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것은 잔디가 복사열을 차단하기도 하고 자연친화적이라는 측면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잔디는 한편으로는 매우 인공적인 이미지를 주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특별히 권장할만한 재료는 아니다.

전통사찰의 포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진정성을 가진 사찰의 다른 요소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아무리 비싸고 공들여 포장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통사찰의 진정성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한다면 그것은 안하는 것보다도 못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전통사찰의 포장에서 중요한 것으로 배수 문제도 지적할 수 있다.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포장의 기능성이나 심미성을 제대로 인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국제 승려 具足戒 금강계단 제3회 비구, 비구니계 수계 대법회

- 국제 포교사(승려, 재가 법사) 품수식 -

출가승이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중생교화, 인간방생의 사명아래 승가의 본분을 이루고자 봉사하고 헌신의 맘을 흘려 보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세속에 물들고 환경에 오염되어 흐트러진 자신의 모습에 때로는 포살과 참회의 기도로 더더욱 정진하곤 합니다만, 웬지 부족함을 늘 느끼곤 합니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서는 300여 종단을 불문 어느 종단의 스님이든 모두가 출가 법납이 10년, 20년, 30년이라도 새롭게 출가승으로 거듭나 초발심에 행자승의 마음으로 되돌아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겠다는 큰 뜻, 큰 마음으로 미얀마 연방 공화국 종교성의 후원과 미얀마 연방 승가회 원로회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具足戒를 주실 三師 七證 大元老 큰스님들을 모시고 상좌부 불교 승려로 거듭나는 남방불교 비구, 비구니 수계를 50분의 큰스님들과 5백여 스님들의 독경에 맞추어 봉행하는 장엄하고 여법한 야단 법석, 국제 금강 계단을 마련했습니다.

연방 승가회 계첩(戒牒) 수여

- 일 시 : 2012년 2월 10일. 수계의식 7박 8일
- 장 소 : 미얀마 양곤 연방 승가회 원로원 (종교성내)
- 참가신청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층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02) 733-5670. 5665
이력서 1통, 승려증 사본1통, 사진3매, 여권을 우편으로 우송.
- 서류마감 : 2012년 1월 10일

· 법종단 차원으로 어느 종단, 어느 스님이든
모든 스님 누구나 다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 최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한국주재미얀마문화원, 미얀마 관광청
후 원 : 미얀마연방공화국 종교성, 미얀마 연방 승가회